

새로운 설레임 ‘진안홍삼축제’ 성료

홍삼 달임액 시음·가공품 체험·지역 농특산물 활용 먹거리 부스 등 인기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2025 진안홍삼축제’가 지난 28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진안 마이산 일원에서 열리며,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축제 기간 동안 ‘홍삼 달임액 시음과 홍삼 가공품 체험’, ‘홍삼까두기 孝養메스타’, ‘일렁 족욕 체험 프로그램’, ‘유아놀이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연일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일부 먹거리 부스와 프리미엄 체험 프로그램은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주민, 청소년, 청년 기획단이 함께 만들어진 참여형 프로그램은 관람객들로부터 “진안만의 따뜻하고 활기찬 축제”라는 평가를 받으며, 진안 홍삼축제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2025 진안홍삼축제’가 지난 28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진안 마이산 일원에서 열리며,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여주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올해 홍삼축제는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교류하며, 진안홍삼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장이 됐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진안 홍삼축제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

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안군은 이번 축제 성과를 바탕으로 2026~2027년 ‘진안방문의 해’와 연계해 전국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43회 장수 군민의 장’ 수상자 4명 선정

장수군은 지난 24일 군청 회의실에서 제43회 장수 군민의 장 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 부문에서 군민의 귀감이 되는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수 군민의 장은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께 군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1982년부터 총 42회에 걸쳐 155명의 영예로운 수상자를 배출하며 지역사회의 자긍심을 높여왔다.

올해 수상자는 △문화체육장 오재영(남·77세) △산업공익장 이정관(남·64세) △애환장 이종순(남·67세) △효열장 한병원(남·73세) 씨 등 총 4명이다.

문화체육장 수상자인 오재영 씨는 현재 사단법인 의암주논개장신선양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주논개의 송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충효교실과 일요학교 운영을 통해 장수향교 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산업공익장 수상자인 이정관 씨는 계북면 토마토연구회원으로 활동하며



문화체육장 오재영



산업공익장 이정관



애환장 이종순



효열장 한병원

재배 기술과 지식을 공유해 지역 토마토 재배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고 계북면 주민자치위원회장을 역임하며 사회단체와의 협력으로 지역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등 공동체 활성화에도 앞장섰다.

애환장 수상자인 이종순 씨는 제26대 재경 장수군민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재경 장수군민회 고문으로서 장수군 향우회 화합과 발전에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효열장 수상자인 한병원 씨는 96세의 노모를 자급정족으로 봉양하고 있으며, 1971년부터 시작된 산서면 이룡마을 경로 효잔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금까지도 해마다 효

잔치, 새해 합동 세배 등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이룡마을에 이어져 오는데 기여했다.

최훈식 군수는 “군민의 장은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영예”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시는 분의 수상자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로 드리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자긍심을 함께 가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43회 장수 군민의 장 수여식은 오는 10월 23일 개최되는 제58회 장수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25/26년 스키 시즌권 1차 특가 판매 조기 마감 임박

가족 친화적 스키장 운영과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의 25/26년 동계시즌권이 큰 호응을 얻으며 1차 특가 판매 조기 마감이 임박했다.

“겨울 스포츠의 성지”로 유명한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지난 11일부터 1차 특가 시즌권을 선착순으로 한정 판매하고 있다. 스키 시즌권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1차 특가 시즌권은 고객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조기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다.

1차 특가 시즌권은 오는 30일까지 구매 가능하다. 2차 특가 시즌권 판매는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뤄지며, 11월 3일부터는 정상 요금으로 판매한다. 특가 판매 기간 동안 패밀리



할인, 연차할인, 무주군민, 대학생, 전년 타사 시즌권 구매고객, 시니어 할인 등 다양한 고객층을 위한 추가 할인이 더해져 더욱 저렴한 가격에 스키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이번 시즌부터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군인, 경찰, 소방관,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를 위한 할인 혜택도 추가됐다. 군인, 경찰,

소방관은 본인과 가족(다둥이 가족 포함)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는 본인에 한해 할인이 적용된다.

올해 선보인 시즌권은 무주통합권 I, II, 무주오부통합권 I, II 총 4가지 종류로 이용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통합권은 주중, 주말 구분 없이 스키콘도와 이용이 모두 포함돼 시즌 내내 스키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통합권 P는 주중에만 스키콘도만 이용이 가능하며 미포함된 상품으로 더욱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한다.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시즌권을 선택해 구입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지원 공모 선정

진안군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주관한 ‘2026년도 특별지원 사업’ 공모에서 2개 사업이 선정되며 기금 12억 역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금강수계 상수원관리 지역 내 10개 관리청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17개 사업이 접수된 가운데 6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 중 진안군은 △상전면 소재지권역 LPG 배관망 사업 △도로 재비산면지

저감사업 등 2개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상전면 소재지권역 LPG 배관망 사업은 기금 9.1억을 포함해 총사업비 1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3개(문화화, 회사, 원주평) 마을의 LPG배관망 구축을 통해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수준의 안정적이고 편리한 연료를 공급한다. 이는 해당 마을 주민들의 난방

비 절감에 도움이 되며 나후면 상전면 소재지의 도·농간 에너지 복지 격차 완화와 주거환경개선으로 에너지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로 재비산면지 저감사업은 기금 4억 3천 원을 투입해 기존에 비해 큰 용량의 도로 노면 청소차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용담호 주변 주요 도로의 비산먼지 저감 대책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는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가 나흘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역대 성과

32만명 방문·축제장 매출액 30억원 돌파…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장수군은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는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가 나흘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18일부터 21일까지 장수읍임곡리와 누리파로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총 32만 명이 방문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렸다.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한우와 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 장수를 대표하는 레드푸드를 비롯한 다양한 농특산물을 구매했으며 축제 현장을 활기 넘치게 만들었다.

장수한우와 사과를 비롯한 농특산물은 완판되었고, 축제장 매출액 전반은 30억 원을 돌파해 명실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추석 명절 2주 전에 축제가 열린 덕분에 사과를 비롯한 장수군 특산물 판매 실적이 높아져 지역 경제에 한층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올해 축제는 경관과 시설, 프로그램 전반에서 업그레이드가 이뤄졌다. 축제장 곳곳에는 상징색인 붉은 꽃, 빅베고니아 1만 5천 분을 배치해 장수만의 정체성을 살렸고, 텐트 또한 붉은 색으로 교체해 통일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한 한우마당과 사과마당을 대형 홀텐트로 구성해 넉넉위와 우천에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관람객이 먹거리와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체험 프로그램 역시 인기 콘텐츠 위주로 재편하고, DIY 사과 팔찌·키링 만들기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메인무대는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해 1만 석 규모의 좌석을 확보했으며, 비가림 시설을 마련해 악천후에도 공연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장수군은 안전한 축제 운영을 위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했으며, 철저한 시설 점검과 안전보험 확대 적용으로 관람객 모두가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김흥기 축제추진위원장은 “32만 명이 다녀간 이번 축제를 통해 장수의 레드푸드와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훈식 군수는 “올해 축제는 매출 성과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장수군을 대표하는 장수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내년 20회를 맞는 축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 세계인이 찾는 먹거리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추석 명절 종합대책·따뜻한 나눔 추진

무주군이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1마일 1담방’ 등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안부 및 물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무주군 공무원들은 담방 마을의 무의탁 독거 어르신과 사회복지생활(이용 시설), 가정 위탁 세대, 저소득 독거 어르신 등을 찾아 생활 불편 사항 등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명절 이웃돕기 결연창구 등도 개설·운영하는 등 지역 내 기관·단체, 주민들이 동참하는 이웃돕기 분위기를 조성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국민기초수급자 등 지역 내 소외계층은 1,941세대, 위문대상 사회복지 시설은 290곳에 이른다.

할인홍 무주군수는 “나눔과 돌봄 실천에 앞장서 모든 군민이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연휴에는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군민과 귀성객 여러분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군, 9.28 향토수복 희생 호국영령 추모제 거행

장수군은 지난 26일 산서파출소 경내에서 제39회 9.28 향토수복 희생 호국영령 추모제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황재현 장수경찰서장,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등 기관·단체장과 산서면 의용소방대원 및 주민 60여 명이 참석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이번 추모제는 장수군 9.28 수복동지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초헌관에는 최훈식 군수, 아헌관에는 한국회 군의원, 종헌관에는 황재현 장수경찰서장이 맡아 전통 예법에 따라 경건하게 봉행되었다.

행사는 6.25전쟁 당시 지역주민을 지



키다 순국한 고(故) 이완기 경찰관 등 15위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이래 올해로 39번째를 맞이한 이번 추모제는 장수군을 대표하는 호국행사로 자리매김하며 지역민의 애국심을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로컬푸드 진안점
추석맞이 특별 할인행사

진안군은 ‘진안로컬푸드 진안점’(진안읍 학전법길 37-9)에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군민과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석맞이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9월 29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행사 기간동안 정육을 제외한 전 품목(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대상으로 20% 특별할인이 적용된다.

할인 금액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추석 장보기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객 감사 차원에서 행사 기간 동안 5만 원 이상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진안로컬푸드 진안점은 지난해 9월 개장한 이후 진안산 농특산물 등을 중간 유통 과정없이 납품하며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남수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추석맞이 할인행사는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와 더불어 군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군민들이 진안로컬푸드를 찾아 건강하고 알뜰한 추석명절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명절 선물세트 생산 박차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수요에 맞춘 선물용 가공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센터는 관내 농업인들과 함께 홍삼순액, 홍삼정 등 홍삼 제품을 집중 생산하며 선물세트 제작에 분주하다. 특히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홍삼 제품은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100% 홍삼만을 원료로 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시설을 기반으로 철저한 위생 관리와 품질 검증을 거쳐 명절 선물용으로도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노금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관내 농가는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한 후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해 직접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지난 24일 장수군청과 함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소방공무원과 군정단속 인원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종정 단속하여 화재 현장에서의 원활한 소방 활동 여건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장수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용수시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활동의 핵심”이라며, “불법 주·정차는 작은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